출판 현장에서의 TEX의 활용

이공계열 대학교재 출판을 중심으로

이주호*

2009년 2월 14일

^{*}국회예산정책처,latex.juho@gmail.com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부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책 ∰ Book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부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1. 유네스코

국내 출판/ 공중의 이용에 제공/ 적어도 49페이지(표지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

- '인쇄된'과 '49쪽 이상'이라는 제한 규정
- 古書, 아동도서, 전자책, ...
- 2. 안춘근 · 강희일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text{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찿아보기, 판권 등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찿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찿아보기, 판권 등

앞부분 쪽번호: 로마숫자 소문자

책의 정의

책의 구성

소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앞부분 표제지, 헌사, 머리말, 차례, 일러두기 등
- 본문 내제지(부, 편, 장 시작 페이지), 본문 등
- 뒷부분← 부록, 용어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판권 등

본문/뒷부분 쪽번호: 아라비아숫자, 1로 갱신

```
documentclass[twoside,b5paper,openright,11pt]{memoir} \mainmatter
\usepackage{amsmath}
                                                     \chapter{이것은 첫 번째 장}
                                                     \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절}
\usepackage[bookmarks=true]{hyperref}
                                                     \subsection{이것은 첫 번째 장의 첫 소절}
\usepackage{mathptmx}
\usepackage[hangulpagestyle, finemath,
                                                     본문이 위치한다.
microtype] {kotex}
                                                     \chapter{이것은 두 번째 장}
\makeindex
\allowdisplaybreaks
                                                     \backmatter
                                                     \verb|\begin{the bibliography}| \dots \end{the bibliography}|
\begin{document}
\frontmatter
                                                     \printindex
\tableofcontents
                                                     \end{document}
```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출판 과정에서 **TEX** 이 관여하는 부분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F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일반적인 도서 출판 과정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기획 저자 섭외 원고 작성(취재)
- 편집 레이아웃 구성 · 조판 교정 · 교열
- 제작 RIP, 터잡기 · 필름 출력, 인쇄판 만들기 인쇄 · 접지 · 제책
- 배포 판매 전자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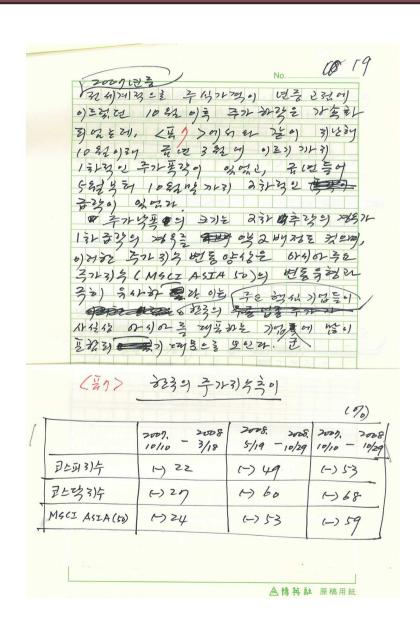
편집 vs. 제작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 원고 작성

- □ 원고지에 직접 쓰기
- □ 육성으로 녹음해오기
- □ 컴퓨터로 텍스트 직접 쳐 넣기

- 편집(조판 및 레이아웃 구성)
- 전자출판(pdf, html, dvi, ...)



출판 과정에서 $T_{\rm 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_EX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_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 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_EX 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 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 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1.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 2. GUI 방식이 아니라서 자신이 조판하고 있는 판면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 없다.
- 3.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하기까지 알아야할 것이 너무 많다.

과연 단점일까?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X글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리거처 (Ligature)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X_{TE}X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리거처 (Ligature)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XJ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리거처 (Ligature)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책 ∰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_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찾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table of contents)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찿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책 ∰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XJ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리거처 (Ligature)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찿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XJ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리거처 (Ligature)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1. 오픈 소스이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 편이다.
- 2. 수식 입력이 매우 간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 3. 수식 폰트의 가독성이 뛰어나고 미려하다.
- 4. 상호참조(cross reference) 기능이 뛰어나다.
- 5. 차례 (table of contents) 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글만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 6. 찿아보기 (index)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나중에 언급한 세 가지 편집자와 저자의 수명을 늘리다. 네이피어(John Napier)의 로그(logarithm)가 천문학자의 수명을 늘렸다고 하듯이...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_EX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합자 (Ligature)
- 2. 문장부호 매달기(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F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pdfT_EX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합자 (Ligature)
- 2. 문장부호 매달기(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_EX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글TE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합자 (Ligature)
- 2. 문장부호 매달기(Hanging Punctuation or Character Protrusion)
- 3. 글자 확장(Font Expansion)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 9.)

매달린 문자 세트

매달린 문자 기능은 단락 경계선 상의 세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좌우정렬된 텍스트에서 더 깔끔한 "가장자리"를 생성하기 위해, 단락 경계선 밖으로 인용 부호를 약간씩 밀어내어 "매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용 부호는 텍스트 상자 밖에 놓이게 되더라도 지정한 규칙대로 정렬됩니다.

"This sentence has a hanging quotation mark at the end."

맑은 물, 수려한 경관, 와 스릴을 즐길 수 있 수한 대지, 최고 봉인 가원들의 지구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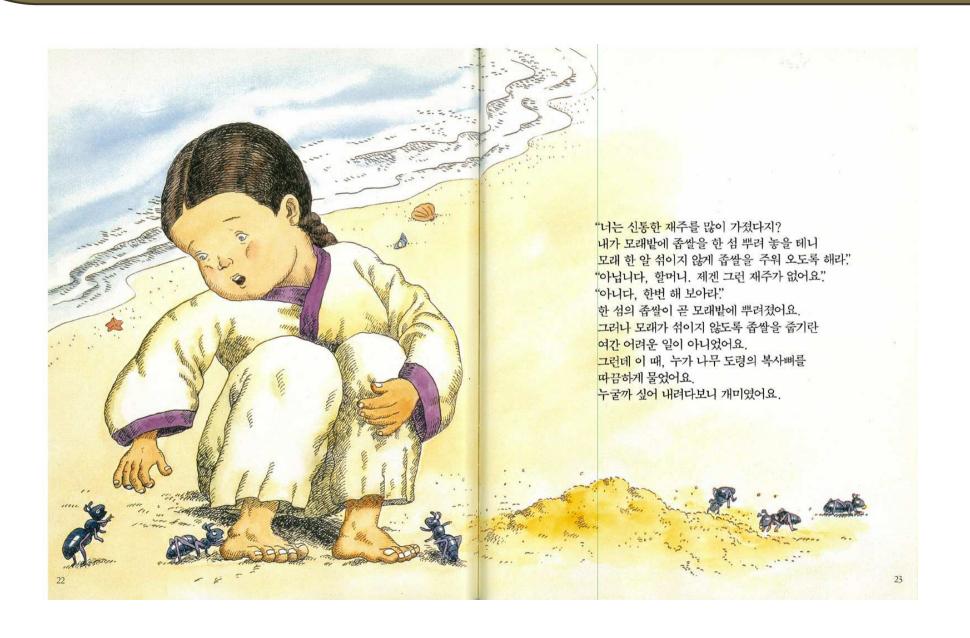
텍스트 경계선 밖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 "매달린 문자"에 대한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dfT_EX 과 microtype (10 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 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한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 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 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 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 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 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분홍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녀는 무안하지 안방에 숨어서, 무안하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 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 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 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또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나무도령(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의 리거처 (Ligature)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X₃T_EX 의 리거처 (Ligature)

Arno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Myriad Pro Regular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The office was affected by the five flawed mufflers.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Have the first student had sufficient?

fjord fjord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T_EX의 단점

T_EX 의 장점

조판에 대한 고급 기술
QuarkXpress 8K의 새로운
기능 (2008.9.)
pdfTeX과 microtype (10년
가량 된 것 같음)
나무도령 (웅진출판주식회사,
1989)

Adobe Illustrator CS2 의 리거처 (Ligature)

X-T-X 의 리거처 (Ligature)

남는 장사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 1. 수식이 미려하고 수식 폰트의 선택 폭이 다양
- 2. 고급조판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 3. 싱글 소싱(Single source publishing) / 다양한 포맷(various formats)
- 4. 수명 연장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종류	판형 (가로× 세로)	판면 (가로× 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 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1.2:1.22: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2:3: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1:1:1.618 = 3:5:5:8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어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종류	판형 (가로× 세로)	판면 (가로× 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 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1.2:1.22: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2:3: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1:1:1.618 = 3:5:5:8

판형 및 판면 결정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어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종류	판형 (가로× 세로)	판면 (가로× 세로)
신국판	152×224mm	105×170mm
크라운판	174×251mm	120×195mm
4*6 배판	190×260mm	135×210mm
국배판 (A4)	210×297mm	150×240mm

- 윌리엄 모리스 안-위-바깥-아래 = 1:1.2:1.2:1.23
- 스탠리 언윈 안-위-바깥-아래 = 1.5:2:3:4
- 황금비 안-위-바깥-아래 = 0.618:1:1:1.618 = 3:5:5:8

우리 책의 경우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우리 책의 경우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어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우리 책의 경우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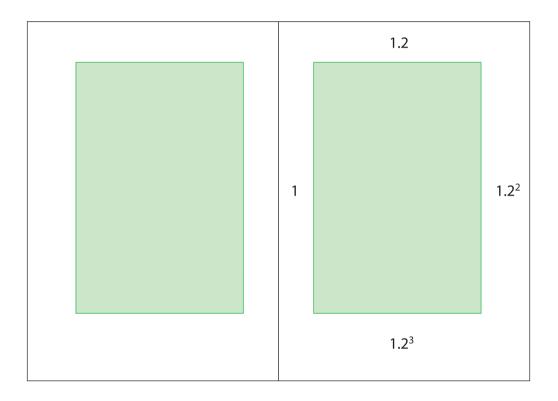
자간과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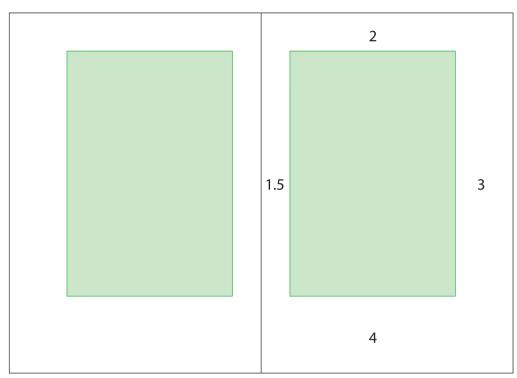
수식 편집

이종운이 추천한 방법

- 1. 위와 아래의 여백을 같게 (면주 제외한 본문만)
- 2. 안 여백은 바깥 여백의 🖯 (바깥쪽 여백의 10%를 더 안여백에 부여)
- 3. 바깥과 아래 여백은 '거의 같은' 나비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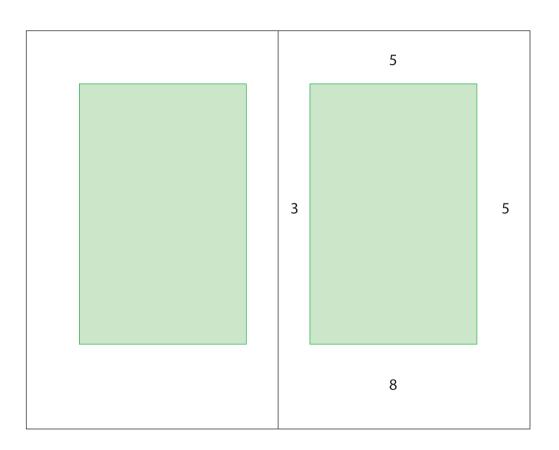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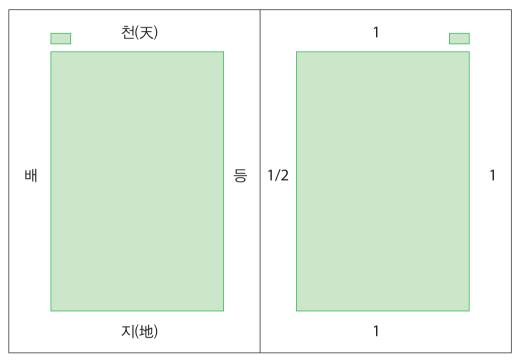


모리스 (Willam Morris)

언윈 (Sir Stanley Unwin)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이종운

황금비 (Golden Section)

geometry 패키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브브}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판면 설정에 대해서는 이 geometry 패키지 하나만 기억하자!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52mm,
paperheight=224mm,
textwidth=105mm,
textheight=170mm,
centering }
```

10

소니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에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 에 마음이 홈가분해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야르막한 산 밑에 음망출방 초가 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벨 닭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한 반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송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결척(50%)도 아니지만 서로 가잡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위하지 아네됐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 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웃매무새는 제법 색시골이 박히어 가기 시작됐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결 있다는 가장에서는 열 살만 되면 밤씨 처녀로서의 에모를 갖추었고 청선이나 음식 숨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꽤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배기 시작 했다. 나는 사람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됐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 하다. 방도 말항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 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비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말국수다. 오이 소박이와 호박눈썹나를 생들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절하고 깔밋했다. 소너는 촌이라 번센치는 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격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 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너의 분홍 적삼이. 소녀 11

나는 야롯한 호기심으로 자꾸 처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렀다. 노파의 온근한 옷을 섞인 소리도 들렀다. 괜찮 다고 엄러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얻고 들어 왔다. 밀 국수도 촌에서는 벌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을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 했다. 적삼 들긴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 빠가 따반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랬 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에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가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홀낏 홍치본 나는 숨 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녀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애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 에 마음이 홈가분해진다. 이 마무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음망줄망 초가 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전의가로 아저씨벨 되는 봉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템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출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획(切底)도 아니지만 서로 가갑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 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배며 옷매무세는 제법 섹시골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결 있다는 가장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배기 시작 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얻다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습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우선했으나, 건나방은 조용하고 깨끗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74mm,
paperheight=251mm,
textwidth=120mm,
textheight=195mm,
centering }
```

10

1 소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친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가분해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울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전의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반역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일에 살 되는 누이를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혼수들 따지 가며 뜻내의까지 할 점속 (1986)도 아나지만 서로 가갑게 지내는 타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위하지 아나겠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너의 몸떼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사들이 받아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번결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산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청선이나 음식 숨씨도 나타내가 시작했다. 집 본 알에는 보리가 누렇게 돼야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배기 시작했다. 난 산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나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청심 대점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습이며, 일꾼들이 도나들고 아수선됐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형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달러 있었다. 아주마나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끌려 냈다.

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만져 있었 다. 나도 옷고료을 때만지기 대칭으로 마구 나와 인사를 했다. 채막보다는 훨씬 성속해 보 었다. 지막 막신방에서 올 가 같이 들릴었다. 이 누구나나는 일본들을 보살되어 나기만 서 오빠 점심 대칭하라고 말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말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 다. 닭국에 말은 말국수다. 오이스박이와 호반노합나들이 늘어 있었다. 상처림은 간소하나 경결하고 합밋했다. 소녀는 존아라 반면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빨만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돈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물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아롯한 호기심으로 자꾸 お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 하는 거씨이 들렀다. 노파의 승근한 웃음 쉽인 소리도 들렀다. 괜찮다고 넘려 말라는 말 같 키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얼고 들어 왔다. 말국수도 존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멀으라느니 너스래를 놓더니, 숨력 작성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마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상 듣긴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용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때난다고 소녀를 불 댔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겠니, 에도 새롭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했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용 때 뭐를 즐낏 총취본 나는 숨어서 반응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2 소녀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에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가분해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음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이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한 반액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삼 아래인, 염세 참 되는 누이별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심상 혼수를 따겨 거며 통내하기자 열 점(明成)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누라, 내가 가면 여간 받가위하지 아니겠고 이제 그 소나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서키곤 했다. 소나의 몸에며 옷매무색들에 배별 색시물이 박하여 가기 사작했다. 그 때만 해도 사골서 좀 범결 있다는 가장에서는 영산만 되면 말에 처녀로서의 에모를 갖추었고 참선이나 음식 숨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말 않아는 보라가 누렇게 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영꾼들이 보리를 빼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돌아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집 이번 이야기 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내받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실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마습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하히 지워져 있고, 자리도 작업 영업다. 아주마나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나를 불러 냈다.

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웃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안져 있었다. 나도 옷고등을 때안지며 대칭으로 마구 나와 인사를 했다. 착보보다는 훨씬 성속해 보 했다. 자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들립없었다. 아구머니는 일꾼들을 보살되어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칭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말은 노파에게 상을 들러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말국수다. 오이스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처임은 간소하나 경찰하고 말맛댔다. 소나는 촌이라 변천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활약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돈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끈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정상이

나는 아륫한 호기심으로 자꾸 차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면수련 하는 기세이 들렀다. 노파의 온근한 옷을 쉬임 소리도 들렀다. 괜찮다고 임리 말라는 말 같 기도 됐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역으라느니 너스제를 놓더니, 송백 적상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심 돌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 댔다. 그라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
\usepackage{geometry}
...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35mm,
textheight=210mm,
centering }
```

교개 마무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가분 전다. 이 마무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음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액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웹에 살 되는 누이템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혼수를 따지 가며 통내회까지 한 철취 (비處)도 아니한 서로 가장에 자비는 다음만 내가가면 약간 반약처하여 가나 되었다. 실적 교리 소녀를 오빠가 왔다. 불러 내어 인사를 사가를 하다는 가장에서는 일 살만 되면 벌써 처나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청산이는 음식 솜씨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김 문 일에는 보리가 누렇게 돼야 있었고, 한권 들에서는 일 문들은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돌아가 이목돈을 뵙고 수인사 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얻다 지배한 되어 나는 시작에는 이 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병은 마슴이며, 일꾼들은 무나들의 아수인됐으나, 인난병은 존용하고 깨끗하는 방로 방향히 차워져 있고, 자리도 할려 있었다. 한국에나는 양 반응을 보고 수인사 집 이 이야기로 있다. 가장에나는 이 상으로 받았다. 집십 대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병은 마슴이며, 일꾼들은 나는걸고 아수인됐으나, 간단병은 존용하고 깨끗하는 방로 방향히 차워져 있고, 자리도 할려 있었다. 한국에나는 영화에게 나를 신시하라고 소녀를 본런 내면 무슨

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받아 있고 미리도 줌에 배안지 있었다. 나 옷교음을 배안지며 대칭으로 마주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웹엔 성숙해 보였다. 지금 박 건너넷 에서 옮겨 간 것이 돌림없었다. 아주마니는 인문들을 보살하며 나가면서 오빠 정실 대칭하라고 말에 입었다. 조른 있다가 받은 노파에게 성을 들려 가지고 했다. 닭국에 받은 민국수다. 오이스박이와 3 박논합나들이 늘어 있었다. 상처림은 간소하나 경찰하고 할맛했다. 소나는 손이라 번만치는 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원속하고 나려면 목소리로 빨만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받고 나갔다.

남왕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아ુ론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만하는 기색이 들었다. 노파의 온근한 옷을 쉬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엄리 받다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 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말국수도 존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숨썩 점심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과 혼자 들어오고, 오레 따라을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저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고의했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나라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나 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겠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이겠니, 해도 세품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겠다. 나올 때 뒤를 옮겨 훔쳐본 나는 숨이서 반응 내다보는 소녀의 빵이 확실히 봤어 있음을 않았다. 그는 부고리했던 것이다.

2 소녀

교개 마무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흡기본해 진다. 이 마무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딸에 융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소녀 11

소나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만지 있었다. 나도 옷교통을 배면지에 대칭으로 마루 나와 입사를 했다. 확단보다는 웹션 상숙해 보였다. 자금 만 건너택 해서 옮겨 간 것이 불었었다. 아구하다는 입문들은 보실되어 나가면서 의 점치 대칭하라고 말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말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받은 밀국수다. 오이스박이와 호 박눈병나들이 놓여 있었다. 상취원은 선소하나 경관하고 합り했다. 소나는 혼이다 변역치는 뜻하지만 많이 들어 임작고 실수하고 나 지원 우소리로 확대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본 등 같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박 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물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아돗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만하는 기색이 뜰당다. 노파의 은근한 옷을 취인 소리도 돌렸다. 괜찮다고 엄리 받다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다니 노 파가 문을 입고 들어 왔다. 말국수도 존해서는 벨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나스래를 놓더니, 슬렘 책상을 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과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최상 들긴 것이 무안하고 부고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무머니는 오빠가 때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라나 소녀 는 안왕에 숨이서 나타나지 아니겠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구줌이겠니, 예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마뜻마뜻 기다겠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훔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뾈이 확실히 볼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소녀

고개 마무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 진다. 이 마무터에서 보면 아트막한 산 밑에 음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점이 내 전회가로 아저씨병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반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영제 살 하는 누이벤 되는 소나가 있었다. 실상 순수를 따져 가며 통과외까지 한 점치 (図底)도 아니 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타수라, 내가 가면 이간 반가위하지 아니겠고, 으레 그 소나를 모바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에며 옷에꾸새는 제법 색시물이 박하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했도 시골자 속 발설 있다는 가장에서는 형 살만 되면 방씨 치나로서의 이모를 갖추었고 싫시아나

4*6배판 변2단

```
\usepackage{geometry}
\geometry{%
paperwidth=190mm,
paperheight=260mm,
textwidth=100mm,
textheight=210mm,
marginparwidth=35mm,
marginparsep=5mm, }
```

고개 마루턴에 방설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명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 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뻥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 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成)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가 반가워하지 아니랜고. ㅇ레 그 소녀를 ㅇ빠가 왔다 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약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 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돼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 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 다. 정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 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

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 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 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 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 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 나 젓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 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 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 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 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상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과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미 나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

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줌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무머무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흠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 각에 마음이 흡가분해진다. 이 마루턴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맛좋맛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백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 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뺄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 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威)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위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 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온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산마 되며 번째 처녀군서의 해무를 간추어고 치서하나 오신 소씨도 나타내 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패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 들이 보리를 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은 뵙고 수인사 2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 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 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온도 갈아 입고 머리도 집 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 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 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 에게 익렀다. 조금 인다가 딱은 노파에게 상은 특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박 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 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 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상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 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 다. 괜찮다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마진에 텐스트를 넣는다

마진에 텍스트를 넣는다.

memoir 클래스

```
\documentclass[twoside,showtrims,
a4paper]{xoblivoir}
\strimmedsize{260mm}{190mm}{*}
\settypeblocksize{210mm}{135mm}{*}
\setlrmargins{*}{*}{1.0}
\operatorname{setulmargins} \{*\} \{*\} \{1.0\}
%판면을 용지 중앙에 위치
\setlength\trimtop{\stockheight}
\addtolength\trimtop{-\paperheight}
\setlength\trimedge{\stockwidth}
\texttt{\addtolength\trimedge}\{-\texttt{\paperwidth}\}
\settrims{.5\trimtop}{.5\trimedge}
 checkandfixthelayout
```

1 소녀

고개 마루터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 지다. 이 마루단에서 보면 아트막하 산 밑에 오막촌만 초가진들이 들어서 마음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전외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바하이 되어 지에 내려오며 하 버씨의 이 지은 차는다. 이 지에는 나보다 하 삭이 레이 열세 잘 되는 누이펠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함 정착(切底)도 아니 지만 서로 가갑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미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골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꽤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베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하 뒤에, 안 건너받으로 안내른 받았다. 정신 대정은 하려는 것이다. 사란받으 마습이며, 약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이사하라고 소녀를 통권 낸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온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만져 있었다. 나도 우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 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려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 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절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않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리 분후 전산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매가 약가 문은 소녀의 분후 전산이

나는 아루하 ㅎ기신으로 자꾸 처다보지 아니한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이가 수권수권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온근한 옷을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열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 과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 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미 미안한 듯 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빵이 활식히 붙어 있음을 악았다. 그는 부끄러워던 것이다.

고개 마루터에 방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 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출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삼 되는 누이펠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함 전척(切底)도 아니 지만 서로 가깐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원하지 아니해고. ㅇ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권 내어 인사를 시키곤 해다. 소녀의 문매미 오매무재는 제법 생사물이 반히어 가기 시작해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집 문 앞에는 보리가 누렇게 꽤어 있었고, 한편 들에서는 일꾼들이 보리를 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너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너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 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우도 같아 입고 머리도 곱게 때만져 있었다. 나도 우고름을 매만지며 대첫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너방 에서 옮겨 가 것이 통원없었다. 아주머니는 익꾼들은 보삭되면 나가면서 오빠 정신 대정하라고 딱에게 익런다. 조금 인다가 딱은 노파에게 살은 들러 가지고 왔다. 답군에 맞은 밀군수다. 이 이스반이와 ㅎ 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절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난창 0 군 등은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은 반느라고 두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해다. 말으며 변 모서리에 걸린 분후 전상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매가 약간 문은 소녀의 분후 전상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수런수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 과가 문음 영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범석이니 맛 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습쩐 전산은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은 내어 각 때는 노과 효자 들어오고 이레 따라온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해다. 전상 들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워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 는 안방에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 하며 미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확실히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고개 마루덕에 방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 진다. 이 마루터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출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를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새 살 되는 누이벨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切底)도 아니 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 내어 의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문매미 오매무재는 제법 생시물이 반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법정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칠선이나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언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 배판 변 2 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어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 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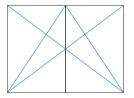
글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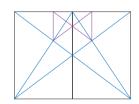
글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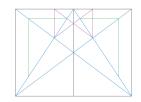
자간과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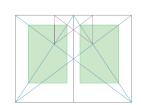
수식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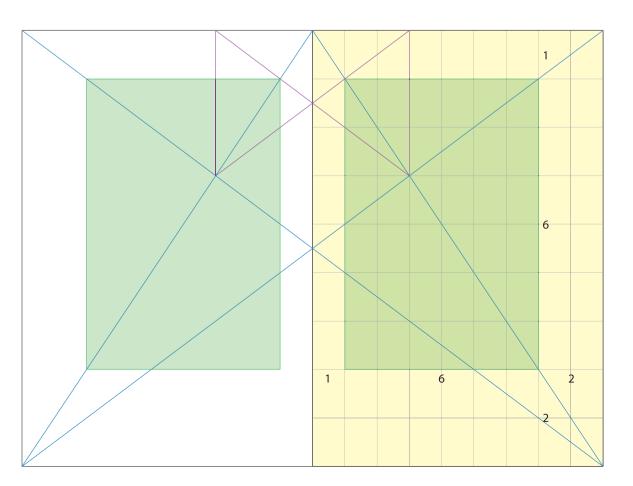
- 판면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나눈 일정한 구역
- 얀 치홀트(Jan Tschichold),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빌라르 드 온쿠르**(Villard de Honnecourt)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정용욱)

김창수	비율(%)	정용욱	비율(%)
윤명조	32.2	윤명조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 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u> 돋움</u>	2.3
신명조, 휴먼명조, HY 중고딕, # 중고딕	1.7	HY 중고딕	1.7

- TEX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x,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정용욱	비율(%)
윤명조	32.2	윤명조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 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 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 중고딕, #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x,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정용욱	비율(%)
윤명조	32.2	윤명조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 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 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 중고딕, #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x,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글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본문용 글꼴 선호도 조사(김창수/ 정용욱)

김창수	비율(%)	정용욱	비율(%)
윤명조	32.2	윤명조100	24.1
SM신명조	12.4	윤고딕 100	21.3
윤고딕	10.7	SM 신명조	8.6
산돌명조	8.3	SM 신신명조	6.3
#신명조	5.0	산돌명조	4.6
HY신명조	3.3	윤고딕 300, 산돌고딕	3.4
SM 신신명조, 바탕, 굴림	2.1	윤명조 200	2.9
		돋움	2.3
신명조, 휴먼명조, HY 중고딕, # 중고딕	1.7	HY중고딕	1.7

- TEX에서도 ttf 사용 가능: dvipdfmx, ttf2hlatexfont (후에 ttf2kotexfont), X글TEX
- 본문에 어울리는 글꼴(font) 선택: **많은 경험이 필요한 대목**

```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r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판형 및 판면 결정
 우리 책의 경우
 모리스와 어윈의 판면
 황금비와 이종운의 판면
geometry 패키지
 신국판
 크라운판
 4*6 배판
 4*6배판 변2단
memoir 클래스
 그리드
 글꼴 선택
 글줄 사이
 자간과 어간
수식 편집
```

```
\fontsize{10pt}{16pt} \selectfont
\setlength\baselineskip{14pt}
% 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renewcommand{\baselinestretch}{1.5}
\linespread{1.0} % \selectfont
% 본문 중간에 이 명령을 내릴 때 \selectfont를 같이 써준다.
\linespread{1.333} % ko.TeX의 기본값
\linespread{1.5}
```

자간과 어간

■ 커닝(kerning): 영문에서 이웃한 한쌍의 글자가 만나는 간격 정보

커닝이 적용되었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커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AVIATION	Toyota	Valley	World

■ 자간

```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char{0pt}
```

■ 어간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Tip 1. \allowdisplaybreaks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당부 말씀

수식 편집

Tip 1. \allowdisplaybreaks

2 오일러의 공식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 (Elements of Algebra)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e^{x} = 1 + x + \frac{x^{2}}{2!} + \frac{x^{3}}{3!} + \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3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begin{split}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 \frac{(iz)^7}{7!} + \frac{(iz)^8}{8!} + \c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i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right) \\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right) \end{split}$$

2 오일러의 공식

복소수를 가르쳤다. 그의 기초 대수학 교재인 (대수학 원론) (Elements of Algebru)에 보면 교재의 거의 맨 앞부분부터 복소수를 도입하고 있고 교재 전체를 통틀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3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테일러 급수에 따라 실수 범위에서 다음의 식이 섯립하다

$$e^{x} = 1 + x + \frac{x^{2}}{2!} + \frac{x^{3}}{3!} + \dots = \sum_{n=0}^{\infty} \frac{x^{n}}{n!}$$

$$\cos x = 1 - \frac{x^{2}}{2!} + \frac{x^{4}}{4!} - \frac{x^{6}}{6!} + \dots = \sum_{n=0}^{\infty} \frac{(-1)^{n}}{(2n)!} x^{2n}$$

$$\sin x = x - \frac{x^{3}}{3!} + \frac{x^{5}}{5!} - \frac{x^{7}}{7!} + \dots = \sum_{n=0}^{\infty} \frac{(-1)^{n}}{(2n+1)!} x^{2n+1}$$

이때 x 가 복소수일 때에 앞의 무한급수를 각각의 함수로 정의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성립하다.

$$\begin{split}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 \frac{(iz)^7}{7!} + \frac{(iz)^8}{8!} + \cdots \\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end{split}$$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증명 3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right)$$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right)$$
$$= \cos z + i \sin z$$

Tip 2. 수직정렬 위치 구분자 &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overline{g}(\nor\overline{\nabla}_XY,V) \ \\ =& \frac{1}{r}\overline{g}(\overline{\nabla}_XY,P) \ \end{align}$$

$$\overline{g}(\mathcal{A}(X,Y),V) = \overline{g}(\operatorname{nor} \overline{\nabla}_X Y, V)$$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1)

$$\begin{align} \overline{g}(\mathcal{A}(X,Y),V)={}& \overline{g}(\nor\overline{\nabla}_XY,V) \ \\ ={}&\frac{1}{r}\overline{g}(\overline{\nabla}_XY,P) \ \end{align}$$

$$\overline{g}(\mathcal{A}(X,Y),V) = \overline{g}(\operatorname{nor} \overline{\nabla}_X Y, V)$$

$$= \frac{1}{r} \overline{g}(\overline{\nabla}_X Y, P)$$
(3)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c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right)$$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right)$$

$$= \cos z + i \sin z$$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c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right)$$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right)$$

$$= \cos z + i \sin z$$

Tip 3. 별행 수식의 줄바꿈 위치

- 관계 기호 또는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을 한다. 행장의 끝부분에 남겨두고 자르지 않는다. 단 행중 수식(in-line math)일 경우는 예외이다.
- 연산 기호 앞에서 줄바꿈한 수식은, 연산 기호가 윗줄의 관계 기호 '오른쪽'에 있는 첫 문자에 맞춘다.

$$e^{iz} = 1 + iz + \frac{(iz)^2}{2!} + \frac{(iz)^3}{3!} + \frac{(iz)^4}{4!} + \frac{(iz)^5}{5!} + \frac{(iz)^6}{6!}$$

$$+ \frac{(iz)^7}{7!} + \frac{(iz)^8}{8!} + \cdots$$

$$= 1 + iz - \frac{z^2}{2!} - \frac{iz^3}{3!} + \frac{z^4}{4!} + \frac{iz^5}{5!} - \frac{z^6}{6!} - \frac{iz^7}{7!} + \frac{z^8}{8!} + \cdots$$

$$= \left(1 - \frac{z^2}{2!} + \frac{z^4}{4!} - \frac{z^6}{6!} + \frac{z^8}{8!} - \cdots\right)$$

$$+ i\left(z - \frac{z^3}{3!} + \frac{z^5}{5!} - \frac{z^7}{7!} + \cdots\right)$$

$$= \cos z + i \sin z$$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보부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eX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	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부분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 편집 디자인을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본문 레이아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 牛步萬里.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 KTUG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세요.
- Be the T_EXnician!

책 册 Book

출판 과정에서 T_EX 이 관여하는 보부

과연 T_EX 으로 출판하는 것이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일까?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수식 편집

당부 말씀

당부 말씀

감사합니다!